

충남연구원 세미나 개최(CNI 세미나 2020-019)

포스트코로나19 시대 문화·스포츠 정책 변화전망 및 과제

2020. 07. 15

일시 ■ 2020년 7월 15일(금), 14:00~ 16:00

장소 ■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



◆ 포스트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 및 스포츠 정책의 변화전망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문화정책 및 스포츠정책 기관들의 유기적 공동사업 발굴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행사 개요

- 일 시 : 2020년 7월 15일(수) 14:00~16:00
- 장 소 :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
- 주 관 :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 주요내용
 - 포스트코로나19 시대 문화정책 변화전망 및 과제(염신규 소장), 포스트코로나19 시대 스포츠정책 변화전망 및 과제(성문정 수석연구위원)
 - 자문 및 종합토론

□ 진행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14:00	14:05	5분	• 개요 및 참석자소개	
14:05	14:10	5분	• 인사말씀	
14:10	14:30	20분	• 발제 1: 포스트코로나19 시대 문화 정책 변화전망 및 과제	문화정책연구소 염신규 소장
14:30	14:50	20분	• 발제 2: 포스트코로나19 시대 스포츠 정책 변화전망 및 과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성문정 수석연구위원
14:50	15:15	25분	• 문화정책 발제자 및 패널토론	
15:15	15:40	25분	• 스포츠정책 발제자 및 패널토론	
15:40	16:00	20분	• 종합토론 및 마무리	
16:00			• 폐회 및 해산	

목차

■ 발제

제1주제 : 포스트코로나19 시대 문화정책 변화전망 및 과제

1

염신규 소장 (문화정책연구소 염신규 소장)

제2주제 : 포스트코로나19 시대 스포츠정책 변화전망 및 과제

15

성문정 수석연구위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성문정 수석연구위원)

■ 지정 토론(자문)

37

진행 : 정지은 책임연구원 · 김민준 초빙책임연구원(충남연구원)

토론 :

- 문화정책 : 이지원 본부장이미영 팀장(충남문화재단), 김명재 팀장(당진문화재단), 박미영 팀장(前 아산문화재단)
- 스포츠정책 : 김태동 부연구위원(강원연구원), 조한영 사무처장(충청남도 체육회), 변현수 사무처장(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01

포스트코로나19 시대
문화 정책 변화전망 및 과제

염신규 소장
문화정책연구소

(포스트)코로나19 시대 문화 정책 변화전망 및 과제

염신규 _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겸임교수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CULTURAL IMPACT ASSESSMENT 2016

코로나 시대의 환경변화

	코로나 임팩트 : 뉴 노멀 시대의 도래	문화예술분야에 가져온 변화
정치 국제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정부의 위기대응능력에 대한 실패, 인간안보 • 글로벌 리더십의 실종, 선진국 신화 붕괴, 국제기구의 실패 • 상호의존성 심화 vs. 자국우선주의(Nationa First) • 새로운 통제사회, 스마트국가(빅브라더)의 출현 • 공공의료체계, 질병관리(위기대응)시스템의 중요성 • 대규모 긴급재원(파)지(money policy), 기본소득 논의의 점화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공연·전시·축제 등 취소, 문화시설 휴관 및 폐관으로 인한 예술활동의 위축</div> <div style="width: 45%;">예술창작 및 제작 감소 예술의 존립 기반 약화</div> </div>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경제위기 (불황),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유턴 • 노동시장 충격(일자리 대체와 Gig 노동 증가), 불평등의 심화 • 온라인시대면 경제(contact economy)의 부상: 원격교육, 원격진료, 원격금융, 비대면 서비스의 폭발적 성장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예술인의 소득감소, 고용불안정 심화 영세한 예술단체의 도산</div> <div style="width: 45%;">예술인 및 단체의 생존 위협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예술인 기본소득 논의 부상</div> </div>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적 위기(재난사회의 도래,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 • 재택근무(스마트오피스), 온라인 교육, 블렌디드 러닝, 홈 루덴스(home ludens) 문화 확산 • 안전에 대한 심리적 과잉, 코로나 블루, 스트레스, 혐오와 갈등, 소외와 고립, 디지털 격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온라인·비대면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향유증가 예술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 요구 확대</div> <div style="width: 45%;">공정권(관객) 기반 확대, 새로운 수익모델(가계) vs. 비관론(디지털 격차, 예술표현의 다양성 저해 등)</div> </div>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네트워크 기반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 VR, AR 등 체험 기술에 대한 강조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소외와 고립, 혐오와 갈등의 완화, 연대, 생태적 감수성,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예술수요 증가, 새로운 형태의 예술표현방식 등장</div> <div style="width: 45%;">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강조 심화, 예술의 내재적 혁신과 회복력 주목</div> </div>
생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구의 인간에 대한 경고 • 자구의 재발견: 일시명흥으로 되살아난 환경생태계 	

* 역사환경변화: 문화일보(2020),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19가지 뉴 트렌드(2020.5.4) 등 참고

출처 : 양혜원, 2025 서울예술인플랜수립 1차 토론회

2

코로나 시대의 환경변화_거시환경

"역사상 전례 없는 인류의 자연 침범, 그리고 바이러스에게 역대 최고의 전성기를 제공하는 공장식 축산과 인구 밀집, 지구 온난화.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들어냈다. 이를 반성하고 고치는 것이 생태 백신이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지금까지 삶의 자세를 성찰하고 자연과 공존하며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행동 백신이다."(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8쪽)

"현 사태는 주객이 전도된 경제체제의 모순을 폭로하고 있다. 무한 이윤 추구와 성장이라는 수단이 모든 국민을 잘살게 하자는 목표, 즉 공공 복지 생명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시민권에 기반한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것. 이 두 가지이다."(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 8쪽)

"현 세계를 떠받치던 체제, 즉 산업의 지구화, 생활의 도시화, 가치의 금융화, 환경의 시장화라는 네 개의 기둥이 무너져내리고 있다. 이제 어떤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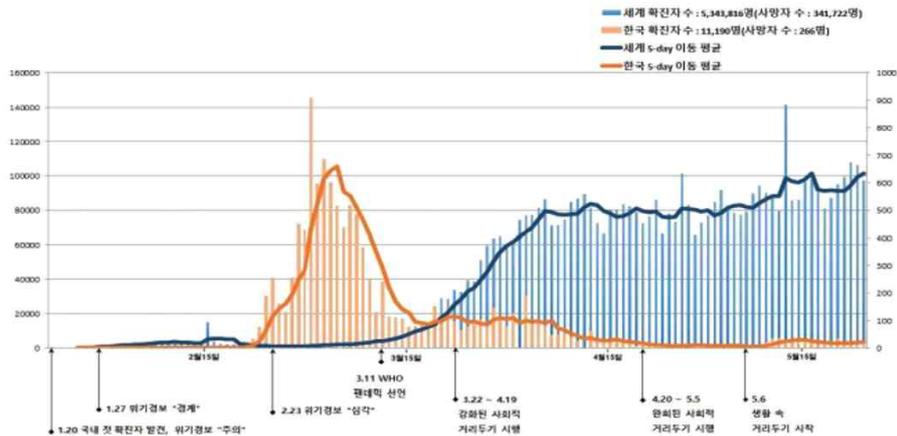
"코로나19가 생각의 틀을 바꾼다. 세계적으로는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 국내적으로는 미국화 신화의 종언을 의미한다...(중략)...지난 한 세대에 걸쳐 위기 대응의 공공 인프라를 초토화해 온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당연시되지 않을 것이며, 그동안 우리를 지배해 온 생각들은 뒤바뀔 것이다. 남은 건, 그 생각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다. 문제는 생각이다. 패러다임 전환없이 22세기는 오지 않는다."(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과 교수, 10쪽)

출처 : <코로나 사피엔스>, 인플루엔셜

코로나 시대의 환경변화_예술환경

코로나19가 가져온 예술분야 피해

세계와 한국의 COVID-19 확진자 수(5.24 기준)



*출처: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출처: 코로나19의 문화, 콘텐츠 영향(4차 보고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27 기준)

출처 : 양혜원, 2025 서울예술인플랜수립 1차 토론회

코로나 시대의 환경변화_예술환경

코로나19가 가져온 예술분야 피해

❖ 한국예총 조사 결과(2020. 3.25)

- 코로나19로 취소·연기된 문화예술행사규모: 2,511건, 피해금액 523억원
- 전년 대비 수입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 88.7% (매우 감소했다 54.3%)

- 설문대상: 한국예총 회원협회(10) 및 연합회(16)지회(156)
- 설문기간: 2020.3.9~3.12(4일)
- 설문방법: 이메일 및 팩스 활용
- 응답: 163개 회원협회 10 및 연합회 16 지회(140) *해위지회 3개 제외

❖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2020.4.29)

- 예술활동이 취소·연기된 예술인: 87.4%
- 고용피해 규모: 50만원 이하(9.3%), 50~100만원(20.5%), 100~500만원(49%), 500~1000만원(12.1%) 1000만원 이상(9.1%)
- 고용피해양상: 일방적 계약해지(40.5%) 계약기간 축소(20%) 임금미지급(14%) 기타(25.5% 계약연장 거절, 계약거절, 구두계약 등)
- 새로운 예술활동 시도 경험률(47.2%), 애로사항: 신규 예술활동기회 감소(67.2%), 정보부족(11%), 불공정계약(3.5%), 기타(경쟁률 과다, 공연장 대관 불가, 사업 참여연령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술인들과 협력 불가, 자녀 육아 등)
- 정부의 코로나19 고용안정제도에 대한 인식률(54%), 참여 경험률(4.3%)
- ※ 창작준비금 지원 > 예술인용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 사회보험료 지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지원대상이 까다롭거나 해당이 되지 않아서(31%), 절차가 복잡해서(6.5%), 지원제도를 몰라서(5.1%), 지원받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려서(3.5%), 지원규모가 작아서(2.2%), 기타(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증빙 불가, 신청후 결과대기중 등)
- 고용안정 위해 필요한 지원 제도: 창작활동지원금(47.7%), 세계지원(34.4%), 구직통합상담(7.6%), 불공정관행개선 지원(5.6%), 기타(생계비 지원, 기본소득보장 등)
- 고용형태: 임금근로자(32.5%), 고용주 및 자영업자(17.6%), 기타(49.9%)
- 프리랜서 여부: 프리랜서(84.1%)

- 설문대상: 예술활동종명자 76,201명(20.4.21 기준) *응답자: 24,330명
- 설문기간: 2020.4.20~4.26(7일)
- 설문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출처 : 양혜원, 2025 서울예술인플랜수립 1차 토론회

코로나 시대의 환경변화_예술환경

코로나 대유행으로 준비하고 있던 제법 큰 전시가 취소됐다. 기관에서 전시준비기금을 수혜자금으로 돌리고 싶다는 공문이 내려왔다. 전시를 취소하고 책정되었던 예산을 코로나 피해가 큰 이들의 생활비로 돌리고 싶다는 것이다. 몇 달 동안 준비했던 일들이 순식간에 리셋됐다. 공문을 받는 순간에도 기획팀은 전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공문은 통보였고 반박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물론 경제적인 손해도 막심했다. 준비 기간 동안의 기획비가 몽땅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기관에서는 아직 열리지 않은 전시에 지급될 보상은 없다고 했다.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코로나로 잃어버린 '일상'이 작가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다. 타인의 삶을 엿들 수 있었던 카페, 버스, 지하철, 그리고 식당. 이 모든 공간에서 나는 열심히 엿듣고, 열심히 훑쳐보고 있었다. 그것들이 창작의 원천이었고, 내겐 자산이었던 것이다. 일상에 빚지고 있었던 걸 새삼 깨달았다.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던 시절 동료작가들에게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다. "결혼 전에 충무로에서 쓸데없이 커피 마시던 시간이 그리워." 그 쓸데없는 시간동안 웃고 떠들며 만들어낸 기획안들이 공모전에 당선되고, 작품으로 완성되었다.

코로나 시대의 환경변화_예술환경

그런데, 올해는 정말 모르겠다. 하기로 했던 일들은 죄다 연기됐다. 지금쯤 하고 있어야 할 미디어 교육은 한 달이 밀렸고, 독립영화 상영회를 진행하는 일도 이번 달은 모두 취소됐다. 모든 게 연기처럼 사라지는 기분이다. 그래도 일찍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한 덕분에 수입 '0'의 상황에서도 굶어 죽지는 않았다. 솔직히 상황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액수를 늘려 대출할 걸 그랬다. 부모님께선 대출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저질러버렸고, 갈수록 남의 돈 빌려 쓰는데 무더지는 느낌이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지금은 사람이 너무 몰려서 심의하고 대출금 받는 데도 한참 걸린다고들 한다. 불행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본격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거세지고, 수많은 복지정책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다. 예술계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예술가들에게 지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주변 창작자들이 서로 해당 기사를 공유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이야기하며, 각자의 고충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 틈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공연이 있었고, 그동안 나는 떨어진 지원서 10개를 작성한 게 전부였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예술활동이 나의 삶을 충분히 바쁘게 만들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었다.

코로나 시대의 정책 대응_정부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분야 정책지원 추진경과

1.20
코로나19
확진자발생
(주의 단계)

- ✓ 2.7.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 협의체 회의(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등)
전국 민간 소규모 공연장(300석 미만) 420여개소에 방역용품 지원

✓ 2.20. 공연업계 긴급 지원방안 발표

- 긴급생활자금 융자 지원(총 30억원)
- 민간 소규모 공연장 430개소에 방역용품, 열화상 카메라 지원(2.2억원)
-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
- 공연단체 피해보전 지원(21억원)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코로나19 피해예술인을 위한 가점(2점) 신설 운영(6천명, 300만원)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2.13)에 포함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2500억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피해우려업종 금융지원 프로그램, 국세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안내

2.23
심각단계
발령

- ✓ 2.24. 문체부 소관 국립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24개 기관 순차적으로 잠정휴관 결정
- ✓ 2.25. 국립공연기관(5개), 국립예술단체(7개) 공연 잠정 중단 결정
- ✓ 2.26. 영화관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의 체납 가산금 면제, 피해 영화관 대상 전문방역비용 지원, 감염 예방용품 지원 확대

코로나 시대의 정책 대응_정부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분야 정책지원 추진경과

3.11.
WHO
팬데믹 선언

- ✓ 3.10. 고용노동부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대책' 관련 '공연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 2/3~90%,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등 가능
- ✓ 3.17.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11조 7천억원) :통합문화이용권 추가공급(161→171만명, 63억원)
 -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대책 국회 통과(COVID-19 파급영향 최소화과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 3.18.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지원방안 II 발표
 - 소극장 공연기획·제작 등 지원(200개소당 최대 6천만원)
 - 예술인 및 단체 공연제작비 지원(160개 단체, 2천만원~2억원 차등지원)
 - 공연관람객 대상 관람료 지원 (예매처별 1인당 8천원, 300만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분야 지원사업 운영대책 발표(공연취소 등 피해 최소화방안)
- ✓ 3.2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코로나19 극복,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사업' 추진 발표(200건, 각100만원, 우수기획안 10건(1천만원),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대국민 서비스 제공 등)
- ✓ 3.30. 제3차 비상경제회의-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마련 검토
- ✓ 3.31. 문화포털에 온라인 공연·전시 통합 안내 페이지 개설(집콕 문화생활 www.culture.go.kr/home)

9

코로나 시대의 정책 대응_정부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분야 정책지원 추진경과

- ✓ 4.1.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캠페인 : 전자책과 오디오북 1인당 2권(80만권), 종이책 무료제공(500명, 총 5000권)
 - ✓ 4.2. 국무조정실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인 청춘마이크(410팀, 67억)과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 확대(12,000명, 362억원)
 - ✓ 4.5. [서울시] 문화예술계 긴급지원 위한 추가경정예산 투입 발표(45억원, 500여건) :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 공모(30억), 예술교육 연구활동(100건, 2백만원)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긴급지원(30건, 1천만원씩), 예술인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120명, 2백만원씩), 예술인이 재난을 대하는 가자가지 비법(100명, 50만원/40명 3백~1.5천만원씩)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3.30~5.15) : 30만원~50만원
 - ✓ 4.6.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 개정 통해 프리랜서 등도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복지지원 인정 (평균 월 65만원)
 - ✓ 4.9. 예술위, 텀블벅, 카카오킵이거치 - 코로나19 긴급 모금 프로젝트 지원 발표(최대 500만원)
 - ✓ 4.13. (온라인수업 지원) 저작권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 무료 배포
- [경기도] 코로나19극복을 위한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 발표(103억원, 2413명, 1732개 단체 지원) : 공공예술프로젝트 백만원의 기적(1000건, 20억원), 공연예술프로젝트 드라이빙 씨어터(10억, 40개팀), 경기도 전업예술인을 위한 긴급 작품구입 및 활용(5억원, 1백~3백만원씩), 예술인 및 예술단체 참여형 영상콘텐츠 제작(12억원, 40건, 3천만원씩),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활성화 위한 예술인조합 공공예술 지원(3억원)

10

코로나 시대의 정책 대응_정부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분야 정책지원 추진경과

5.6. 생활방역체계로 전환

- ✓ 4.14. (온라인수업 지원) 국립 박물관·미술관 전시교육 영상 콘텐츠 제공
- ✓ 4.20. (온라인수업 지원) 문화예술교육 전문 콘텐츠 제공(234건)
- ✓ 4.21.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대책 발표(170억원 추가투입)**: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90% 한시 감면, 영화제작개봉 지원(42억원), 직업훈련지원(8억원, 700여명), 영화관 특별전 개최(30억), 영화관람할인권 지원(6000원, 130만장, 90억원)
- ✓ 4.22. 제1회 유네스코 문화장관 화상회의
- ✓ 4.29 공연장대관료 지원사업 시행 (예술위): 40억원 (400여건,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적격성 심사방식으로 전환)
- ✓ 5.6. **국립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서비스 부분 정상화**: 사전예약제, 개인간 거리유지, 개인관람만 허용 등
국립공연시설 재개관, 국립예술단체 공연 재개: 생활속거리두기 지침 준수(2m간격, 마스크 착용, 한칸 띄어앉기 등)
문학관(113개)에 소속물품 지원
인디 가수들의 실시간 온라인 콘서트 '씬디스케이치 랜선 라이브'(5.6~5.28) -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공동
- ✓ 5.8. 예술위, '공연실황생중계 지원사업(12편)
- ✓ 5.11.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작**: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

11

코로나 시대의 정책 대응_정부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분야 정책지원 추진경과

5.29. 쿠팡사태로 수도권지역 공공시설운영 중단 결정

- ✓ 5.12.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공간 긴급지원 사업 시행(9억원): 300만원씩 280여 공간 지원 (지원범위 확대, 서류 간소화, 자체부담금 면제 등)
 -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상반기 7,538명 지원(226억원) 발표
- ✓ 5.16. 온라인 케이팝 공연 랜선음악여행 - 트립 투 케이팝(TRIP TO K-POP)(5.19~5.21)-한국콘텐츠진흥원
- ✓ 5.14. (고용노동부장관 주재)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 개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월 50만원, 3개월, 6.1~), 예술인고용보험제도 도입 관련
- ✓ 5.15.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온라인 통합 플랫폼 (artnuri.or.kr 또는 아트누리.kr) 개설**: 개인별 맞춤형 지원대책 조회, 기관별로 분산된 예술지원사업 통합 홈페이지 예술도움(가칭)도 개설 예정(연말 예정)
- ✓ 5.20. **고용보험법 국회 통과: 예술인고용보험제도 도입**
한국문화 홍보 MCN 구축(코리아넷 유튜브 채널): KOREA IN THE WORLD, K-INFLUENCER, KOREA TREND
- ✓ 5.26.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예술로 참여예술인 709명에게 활동비 선지급 결정(8억 7천만원)
- ✓ 5.29. 국립공연기관(4개) 휴관, 국립예술단체 공연 중단(7개)
- ✓ 6.1.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 특고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작**: 1인당 150만원 생계비 지원

12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문화 이슈

(기후)현재의 코로나 상황을 불러온 요소 중에는 분명히 역사적 과정을 통해 당연한 듯 형성해온 현대 문명에서 비롯된 것이 적잖이 잠복해 있다는 것

- 새롭게 변형된 바이러스의 출현은 생태계에게 도달한 새로운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것
- 기후 위기 등 현대 사회의 환경 이슈와 닿아있고 전지구적 급속한 전파는 현대 사회의 한 특성인 이동성(mobility)의 폭발적 증가와 직결되는 문제

(이동성)현대 사회의 엄청난 이동성은 도시학자 데이비드 하비가 지적했듯 시공간 압축의 포스트모던한 사회적 상황이 상수

부지불식간에 찾아든 대량 감염병의 위기는 세계 각국의 정부와 공공영역에서의 대응에 있어서의 큰 난제

(사적 자유의 제한)개인의 사적 자유의 권리를 공익적 차원에서, 즉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과제

(비대면 환경)발등의 현실

이슈에 대한 시각들_2025서울예술인플랜 논의 중_홍기원



- 성찰적 예술가_공적 지원은 물적 조건을 만드는 힘인 동시에 사회나 환경과의 연결성에 대한 자기 성찰을 하게 하는 힘_사회적 자아 인식
- 상품을 만들 것인가 창의적 작동성을 만들 것인가_공공성과 보충성의 원리 인식
- 예술의 의미변화에 대한 예술가의 역할에 대한 자기인식_창의적 작동성을 만들어내는 예술가
 - ※소비의 경쟁을 만드는 생활문화, 관련된 예술가
- 시민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는 예술가_관계성
- 예술가 자신의 관객을 만드는 일의 건강성

이슈에 대한 시각들_2025서울예술인플랜 논의 중_홍기원



- 공공지원만이 유일한 정책이 아니라는 인식_다원화된 방식의 지원정책에 인식 전환
- 자발성(spontaneity), 자립성(self-sufficiency), 자율성/자치성(self-regulation / autonomy)를 정책가치로서 인식_자발적 결사체(문화적 커먼즈)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대한 지원
- 예술가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15

이슈에 대한 시각들_2025서울예술인플랜 논의 중_홍기원



- 학교 안의 예술과 학교 밖의 예술의 괴리_예술가에 대한 기대의 차이_엘리트 되기에 서 시민 되기의 간극
- 예술가의 권리 개념 깨닫고 주장하기
- 예술교육의 분절성_칸막이_위계와 카르텔 허물기
- 18-19세기 예술가 교육의 종식
- 일반 교육과정에서의 타당한 예술교육의 가치 정립
- 사회적 맥락에서 예술의 의미 기획할 수 있는 역량 키우기
- 전문예술가와 생활예술의 괴리 극복

16

이슈에 대한 시각들_2025서울예술인플랜 논의 중_홍기원



- 환경가치를 창출하는 예술가의 역량을 인식하는 정책
- 예술의 생태적 가치, 기후정의의 활동성에 대한 인정



- 성평등이나 반차별 의식을 확장하는 예술가의 역량을 인식할 수 있는 정책
- 불편한 것을 불편하다고 드러내는 예술의 가치 인정
- 정치의 시간, 사회적 관심의 시간을 줄 수 있는 시스템

이슈에 대한 시각들_2025서울예술인플랜 논의 중_홍기원



- 예술가의 노동이 창작만이 아님_소통행위의 노동성 인식
- 플랫폼 노동의 안전성 확보



- 예술가를 서비스 생산자로 보는 시각 공유와 협업이 일반적 서비스 공급으로 전략하게 만드는 구조
- 행정목표를 달성하는 도구적 존재 인식

이슈에 대한 시각들_2025서울예술인플랜 논의 중_홍기원



매개적
역할에
대한
인식

- 중간지원이나 매개(intermediary)의 역할에 대한 인정_거버넌스 실행 과정_개인과 국가의 직접 접촉의 한계



대표성과
윤리

- 결사체의 대리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기준_재검토_누가 누구를 대표하는가, 대표할 수 있는가
- 합의(consensus) 과정이 정책의 전부가 아님_어떤 '내용'을 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윤리가 있는가
- 전문가 담론보다 일반인의 거버넌스 참여가 가능하도록 정보, 평론 등의 영역 형성

19

이슈에 대한 시각들_2025서울예술인플랜 논의 중_홍기원



회복탄성

- 재난을 계기로 개개인의 대응력을 키우는 방식보다는 사회전반의 회복탄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행정철학
(가치)

- 행정철학의 전환_행정의 우위 아닌 평등한 협치_신뢰기반
※ 팬데믹시대의 개인은 각각이 행정의 주체?
- 의견수렴만이 아닌 실행과정에서의 지속적 참여와 개입

20

이슈에 대한 시각들_2025서울예술인플랜 논의 중_홍기원



-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결과를 궁금해하기 보다는 두 영역이 만나면서 어떤 관계들이 만들어지는지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게 상이한 경험과 새롭게 형성되는 관계에 주목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는 문화정책의 과제

우리는 결코 코로나 이전과 같은 삶의 태도로 살 수 없게 되었다는 점

개인과 개인,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공공영역의 관계는 모두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음

변화는 그 자체로서는 양면적이고 다층적

기술의 진보나 관리방식의 변화는 표면적으로 코로나 사회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 문제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항구적인 답이 될 수는 없음

사회를 다양성과 개방성이라는 민주적 가치 속에 자생할 수 있게 만드는 문화의 힘과, 이를 배양할 수 있는 사회적 어젠다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함

방법론으로서의 문화정책이 아닌 시민의 일상을 규율하는 원리로서의 문화정책 필요

세대, 노동, 성, 환경, 생산과 소비 등 다양한 사회적 층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문화정책의 원리로 재구성하는 것이 우리가 환란을 건너는 지혜임

새로운 문화적 상상력은 눈 앞의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02

**포스트코로나19 시대
스포츠 정책 변화전망 및 과제**

성 문 정 수석연구위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코로나19 시대 스포츠정책 변화전망과 과제

성문정(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1. 들어가며

-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러한 현상을 토대로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6단계를 일컫는 말로 ‘팬데믹(pandemic)’, 즉 ‘전염병 세계 대유행’을 선포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가 멈추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님
 - 혹자들은 ‘지구가 멈춘 것’이라고 말하기도 함. 지구가 멈추고 전 세계가 멈춘 것이니 지구상에서 전 세계인들이 즐겨하는 스포츠 또한 멈춘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 예방의 첨단국이자 세계적 우수 방역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선 그 스포츠의 멈춤이 예외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임
 - 축구는 이미 세계 36개국에서 K-리그를 중계하고 있으며 개막전은 330만명이 시청했으며, 프로야구는 야구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생중계되고 있음. 1906년 ‘황성 YMCA 야구단’이 조선 땅에 최초의 야구 ‘씨앗’을 뿌린 이후 105년이 지난 오늘, 야구의 본 고장인 미국에서 우리 프로야구 콘텐츠를 수출하게 된 것임
-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자 정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선언하면서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기 운동을 전개함
 - 불요불급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외출 자제,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집단 감염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 중단 등의 권고 내용이 그것임
- 그러나 이러한 권고는 말 그대로의 ‘권고’가 아닌 「감염예방법」에 따른 강제 집행이나 다름없었음. 즉,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을 점검하고 위반시설은 집합금지명령을 발동, 감염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 300만원) 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임
- 이러한 조치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은 강제 폐쇄되고, 민간체육시설업은 집단감염 위

협시설 운영 제한 조치에 따라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의 운영 제한 및 감염우려에 따른 자발적 운영 중단이 이루어져 국민의 스포츠활동은 거주 공간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공간에서 제한받는 상황에 이르렀음

- 이 뿐만이 아님. 체력인증센터 등 국민체력 100사업의 운영 중단으로 국민들의 일상적 자기 체력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학교 개학 연기로 인해 학교 내 체육활동이 전면 중단(정과 교육 포함, 학교스포츠클럽, 방과 후 학교, 돌봄 교실 등)되어 유초·중·고등학생들의 신체활동 저조로 인한 성장·발육 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도 하였음
- 전문체육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시작되는 소년체전, 장애학생체전, 각종 종목별 전국 및 지역대회, 생활체육대회 등의 취소가 일상화되어 상급학교 진학, 대회관련 각종 연계 업종의 피해 발생(이벤트, 중계, 광고,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이 극한에 이르게 되었음

II. 위기의 연속, 아사직전으로 몰리는 스포츠현장

-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확산방지를 이유로 각국이 앞 다투어 국경을 폐쇄하고 이동을 제한하자 스포츠분야에서도 올림픽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대회가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음. 그러니 관중이 입장하는 각종 프로스포츠가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당연한 조치였을 것임
- 그러나, 모든 스포츠활동의 중단조치는 결과적으로 스포츠시장을 폐쇄화시키고 스포츠를 매개체로 살아가는 스포츠계 종사자들을 아사직전으로 내몰고 말았음. 이러한 현상은 필자가 맡고 있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현안대응팀의 조사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남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현안대응팀에서 산출한 스포츠산업 현장의 피해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국내 스포츠산업 전체 예상매출액은 약 53,592십억 원으로 추산되며 전년(80,955십억원 추산) 대비 약 33.8%의 감소가 예상됨
- 집단 및 대면활동 기반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서비스업의 경우 회원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고정비용 부담 등으로 일시적 휴·폐업이 잦아지고, 이를 계기로 전체 고용인원(453천명)의 약 33.4% 수준인 150.3천명이 감원될 것이라는 추정치가 도출되기도 함(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내부조사자료, 표 참고).

○ 스포츠산업 규모 및 고용현황

-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 규모는 사업체 107,271개, 종사자 454천명, 매출액 80,955 십억 원

(단위: 개, 천명, 십억원, %)

구분	2016	2017	2018	연평균 성장률	2019
사업체 수 (개)	95,387	101,207	103,145	4.0	107,271
종사자 수 (천명)	398	424	435	3.7	454
매출액(십억원)	72,608	74,696	78,067	3.7	80,958

- * 2019년 스포츠산업 사업체, 매출액, 종사자는 전체 연평균 성장률을 66개 세세업종별 적용 후 합산
- * 자료: 2016, 2017, 2018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산업 휴업현황

- 스포츠산업 사업체 휴업현황 조사 결과 산업전체 휴업비중은 33.4%, 휴업으로 인한 감원은 151.3천 명으로 추정

- * 집단·대면활동 비중이 높은 스포츠시설업(37.0%)과 스포츠서비스업(52.8%)에서 스포츠용품업(7.8%)에 비해 높은 휴업 발생

(단위: %, 천명)

구분	휴업 현황			휴업에 따른 감원	
	영업중	휴업중(A)	휴업고려중	종사자 수(B)	감원규모(A×B)
스포츠시설업	58.0	39.4	2.6	196	77.2
스포츠용품업	88.0	7.8	4.2	142	11.1
스포츠서비스업	45.2	53.9	0.9	115	62.0
전체	64.0	33.4	2.6	453	151.3

- * 휴업현황 조사: 스포츠산업 업종별 사업체 3,000개 대상 휴업현황 조사('20.4.1~4.10)
- * 자료: 스포츠산업 코로나19 긴급 현황조사(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특히, 영업이 제한(3.23~)된 실내체육시설은 휴업률(무도장 80.0%, 체육도장 75.4%, 무도학원 64.7%, 체력단련장 49.3%)이 스포츠산업 전체(33.4%)를 크게 상회

○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산업 폐업현황

- 스포츠산업 사업체 폐업현황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20.2~3월 동안 폐업비중 1.02%로 폐업 사업체 5,377개, 실업자 16,264명으로 추정

- * 스포츠산업 사업체 폐업 비중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1년 동안 월평균 0.26%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2개월 동안 월평균 0.51%로 1.9배 증가

(단위: 개, 명, %)

구분	사업체 모집단 (2019)	폐업현황 조사표본	폐업 사업체 수					폐업 사업체	폐업 실직자
			코로나 이전 ('19.2 ~ '20.1)		코로나 이후 ('19.2 ~ '20.3)				
			사업체	월평균	사업체	비중	월평균		

			수	비중	수		비중		
스포츠시설업	43,075	2,951	115	0.33	21	0.71	0.36	3,191	9,197
스포츠용품업	35,527	1,847	47	0.21	23	1.25	0.62	1,732	6,029
스포츠서비스업	28,663	2,941	82	0.23	35	1.19	0.60	454	1,037
전 체	107,271	7,739	244	0.26	79	1.02	0.51	5,377	16,264

* 폐업현황 조사: 국세청홈텍스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용한 폐업 현황 조사('20.4.8~4.10)
* 자료: 스포츠산업 코로나19 관련 폐업현황 조사(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계의 풍지박살(?)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세계 각국이 공통적인 현상임
-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관련 스포츠분야 주요 지원책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코로나19 관련 주요국 스포츠분야 지원 대책〉

지원유형	국가	지원 대책
제정지원 (체육인 체육단체 스포츠클럽)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클럽(리그대회 취소, 클럽운영, 훈련취소, 스포츠시설 관리, 감독·코치·시간강사 인건비, 기본 수입 등) 피해액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2,000개 스포츠클럽에서 재정적 피해 심각. 피해액 규모 약 200Million유로(약 2663억원) 이상 추정 ○ 함부르크 주 체육인 긴급 지원(3.31) : 체육인 동호회, 체육행사 주최자 생존 필요자금 대출 지원(최대 150,000유로) ○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RW) 스포츠클럽 즉시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즉시보조 지원비 1,000만 유로 결정(4.9) : 4.15-5.15일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지원규모는 규모에 따라 최대 60%, 금액으로는 최대 5만 유로 - NRW 스포츠재단(Sportstiftung NRW)의 국가대표인력 및 스포츠클럽 강사 지원결정 : 올림픽선수(장애인선수포함) 2020년까지, 감독(코치) 2021년 도쿄 올림픽까지 재정 지원, 스포츠클럽 소속 시간강사 월급 300만 유로 지원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체육회 195백만 파운드 규모 재원(기금+국비) 조성, 체육 기관 및 경기장 등 각종 시설 지원(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럽 및 지역단체 중 신청 시, £300~£10,000파운드 차등(총 £20백만) - 현재 사업수행 중인 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총 £5백만) - 현 격리 상황에서 신체활동을 유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 혹은 사태 이후를 준비하거나 상황 극복을 위한 경우(총 £55백만) - 올해 사업들이 내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총 £115백만) <p>경제 지원책(3.23) : 직원 고용유지 지원책,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원책, 사업세 유예, 소규모 사업자 현금지원책 및 중소기업 긴급지원 사업대출에 스포츠산업체 포함 가능</p>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SW 주정부는 23억 호주달러(약 1조 7천억원)을 COVID-19로 인한 경제 실

		<p>업 등 경제지원 방안에 지원(3.12). 추후 경제 파급효과의 경과를 지켜보며 2차적인 지원방안 모색(3.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SW 스포츠 단체에 대한 COVID-19 정부지원은 30,000호주달러(약 2천3백만원)는 기존 회계감사 이후 지원되던 것을 단체장 명의의 성명서와 함께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 - 크리켓협회 : 긴급지원자금 25만 달러를 마련, 코로나19로 정부지원 기다리는 선수들 우선 지원
재정지원 (체육인 체육단체 스포츠클 럽)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골프협회(USGA) 59개 산하 단체에 500만달러(약 60억6천만원) 보조금 지급 ○ 500인 이하 스포츠 관련 기업 대출 지원 : 총 3,490억 달러 규모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 대부분은 고용 보험(employment insurance) 가입과 캐나다 비상대응보조금(CERB: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요청 시행 중 - 현재 캐나다는 CERB를 작동해 전년도에 5천 달러 이상을 벌었고, 코로나19로 소득을 상실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 - 코로나19로 인해, 14일 연속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이전에 얼마를 벌었는가와 상관없이 최대 16주 동안 격주로 2천 달러 수령 가능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단체에 대해 37.8백만 뉴질랜드달러(약 275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결정(4.7), 추가지원의 정확한 규모 산출을 위해 KPMG와 협력 중 ○ 정신건강을 위해 400여명의 숙련된 상담사를 전국에 배치, 1:1 상담지원(4.7)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 분야에 10억 SEK(약 1,200억) 추가 지원 - 문화산업 관련 기관(영화관, 공연장 등) 및 스웨덴 체육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분야/단체에 지급 예정 ○ 실업자 정책(실업급여 지급기준 완화, 실직자 재교육기회 확대 등) / 기업정책(납세기간 연기, 법인세 할인, 저금리 대출 확대 등) 문화, 예술 및 체육 분야 사업에도 적용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국가지급보증 형태의 신용지원 승인 - 경제·사회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 긴급 조치 차원에서, 신용지원금 최대 1,000억 유로로 책정하고, 이 중 1차로 200억 유로를 신용지원금으로 승인, 이 중 50%는 중소기업체 및 자영업자를 위한 우선 지원책으로 할당될 예정 * 스포츠 관련분야(스포츠클럽, 스포츠 연맹 등)의 경우, 비영리 단체 및 중소기업인 것을 명시해야 함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유지 및 사업계속 지원 -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긴급 대출·보증 범위 확충, 사업 지속 곤란 중소기업자 및 생활 곤란 가구 지원 신규 보조금 제도 도입) - 비환불 스포츠이벤트 티켓 '기부' 인정 세액공제 조치 추진
스포츠 활동지원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에른 주 : 주체육회(BLSV) 공식 유튜브채널 "BLSV TV" 에 공동 캠페인 "Zamfitbleim"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럽시설에서 트레이너들이 찍은 운동프로그램 영상 약 120개를 홈트레이닝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 ○ 베를린주 실내 운동프로그램 향상을 위해 베를린, 포츠담 멀티미디어 포털사이트(ribb)와 협력, 매일 2회 (9:30분, 14시) 라이브방송으로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유아체조, 휘트니스, 가족스포츠, 요가 등) 실시 - 수업 실시 트레이너는 온라인 수업으로 일자리 확보 가능. 현재 4개 스포츠클럽 소속 시간강사 및 트레이너가 활동 중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이벤트 및 활동 재개 지원 - 스포츠 이벤트 재개지원(2020년도 보정예산금 864,746천엔 규모)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규모의 리그 및 대회 주최자로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스포츠단체 : 상한 1,000만엔 (1/2보조) · 지역스포츠 수수료 : 한 단체당 상한 400만엔 (1/2보조, 전액보조) · 장애인스포츠 단체 : 상한 2,000만엔 (전액보조)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이벤트 참가자 유도 위한 홍보비 지원 - 스포츠를 통한 지역 활성화·교류 행사 개최비 지원 - 이벤트 자제 및 휴교로 인한 어린이 운동부족 해소를 위한 운동기회창출 콘텐츠 정보제공(일본체육회)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일본체육회는 ACP(액티브 차일드 프로그램)을 각 스포츠협회가 지자체에게 노하우를 공유로 전국의 초등학교, 종합형 지역스포츠 클럽, 스포츠소년단 등(전국 500개소에서 실시) ACP를 통한 어린이와 함께 운동을 하고 체험활동 등을 실시하는 기회 제공 (2020년도 보정예산요구금 325,460천엔)</p> </div>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스포츠연맹, 스포츠지원 단체, 스포츠센터의 선수와 코치를 중심으로 스포츠 참여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증거 기반 프로그램 운영 지원(41) - 스포츠를 통한 원주민사회 발전 프로그램 지원(3.17)
시설지원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증 확산방지 대책(비접촉 체온계, 소독용 알코올 등) 경비 지원 ○ 공립 생활체육시설 환풍기 팬·공기 조절기 정비 개보수 지원(2020년도 보정요구금 : 582,933천엔) ○ 엘리트선수 안심 이용위한 스포츠센터 공조기 설비 갱신 등 감염증 예방과 상담 체제 강화(2020년도 보정예산금 1.8억엔)

Ⅲ. 스포츠정책 변화 전망과 과제

1. 전망 : 비대면 활성화

1) 비대면 경제와 스포츠의 관계

- (비대면 경제 가속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사회 전반의 비대면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 비대면 현상 확산으로 인한 사회 변화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고착되어 사회 전반의 근본적·장기적 변화가 예상됨
- (스포츠 비대면화의 한계) 스포츠는 본질적으로 물리적 공간 내 참여자 간 신체 접촉·경쟁을 포함
- (비대면 확산 대응) 비대면 경제와 스포츠 속성의 간극을 극복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보완적 접근 필요
 - 동일 공간 내에서의 대근육 운동 중심 신체접촉 경쟁 활동이 스포츠의 본질이므로 스포츠 자체의 변화보다 서비스 제공방식 변화 중심의 비대면 경제 확산 대응이 필요함

2) 스포츠 분야 비대면 현황

가) 스포츠분야 비대면 현상 대두 배경

- (환경 변화) 미세먼지·폭염 등 야외 활동 제약 요인 증가, 신종 감염병 출현으로 인한 대면 접촉 기피
 - * 미세·초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횟수: '17년 334회 → '18년 728회 → '19년 971회 (한국환경공단)
 - * 폭염일수: 1980년대 연평균 9.4일 → 2010년대 연평균 15.5일 (기상청)
- (사회·문화적 변화) 소통보다는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
- (과학기술 발전) 비대면 스포츠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 및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의 진화

나) 스포츠분야 비대면 현황

- (플랫폼 기반 운동 콘텐츠)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온라인 콘텐츠 확산 및 기기 보급으로 홈 트레이닝 수요 증가
 - 체육시설 이용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라 홈 트레이닝 급부상
 - * ESSA(Exercise & Sports Science Australia)는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운동 지도가 가능한 ‘Telehealth’ 프로그램 운영
 - 가격 경쟁력 확보 및 개인주의적 성향에 부합하여 청년층을 중심으로 소구력 증대
 - * ‘20년 1분기 홈 트레이닝(스텝퍼, 아령, 실내 자전거 등) 관련 매출 전년 동기 대비 30% 가량 상승
 - * 문체부·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홈 트레이닝 동영상 제공
 - * 온라인 PT 서비스 마이다노 ‘20년 2월 수강생 전년 동기대비 155%p 증가

- (스마트 기기·시설) 스마트 트레이닝 플랫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과학 기술이 결합된 스포츠 활동 증가
 - 자가 운동 증가에 따른 운동 정보의 활용 수단으로 스마트 워치, 고글, 이어폰 등의 스포츠 기기 이용
 - 기술 결합 스포츠 활동은 자가 체력관리 및 트레이닝, 온라인 코칭, 가상경기 등을 통해 비대면 스포츠 확산 가속화 전망
 - * 스마트 트레이닝 플랫폼 와후(Wahoo), 온라인 사이클링 플랫폼 즈유프트(ZWIFT) 등 관련 서비스 지속적 성장
 - 개인 또는 소규모 참여가 가능한 가상·증강현실 스포츠에 대한 관심 증가
 - * 동작인식 기반의 체감형(스크린 골프·야구 등), 모션베이스 기반의 시뮬레이터(바이크·스키·스노보드 등), 트레이닝(러닝·사이클 등) 등에 대한 수요 증가
 - * 전국 초등학교 및 공공시설 150개소(‘20년)에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 (국민체육진흥공단)

- (스포츠산업 구조변화)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인한 비즈니스 환경 변화
 - 코로나19 여파로 스포츠산업 유통구조가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
 - * ‘20년 2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증가(34.3%)하는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감소(-7.5%)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경영 전략수립과 일자리 문제의 새로운 접근 요구
 - * 온라인 유통업체 스포츠 관련 품목 매출 성장률(12.8%)은 가전/전자(11.1%), 패션/의류(7.8%)보다 높게 나타남
- 포스트 코로나 스포츠산업 도약을 위해 비대면 기술 개발, 비대면 기술 기반 경영 환경 구축,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 스포츠 서비스업은 비대면 기술 활용 고부가가치 창출, 스포츠 용품제조업의 경우 비대면 유통채널 확대를 통한 공정한 시장 기회 제공

3) 스포츠분야 비대면 전망

가)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① 비대면 시설·지도·프로그램 선호현상 강화

- 기술 기반의 소규모 실내운동 확대
 - 집·사무실 등 개인 공간, 소규모 또는 1인 시설, 가상스포츠 체험 공간 등 부각
 -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오프라인 지도보다는 동영상 또는 온라인 트레이닝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비대면 지도 확산
 - 전문체육 분야 종목별·개인별 트레이닝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활성화
- 종목 특성에 따른 스포츠 참여 변화
 - 대면접촉이 불가피한 종목(구기·격투기·수영 등)과 함께 비대면 활동이 가능한 종목(걷기·마라톤·자전거·등산 등) 참여 증가
 - *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20년 2·3월 이용 횟수 전년 동기 대비 66.8% 증가

② 대회 운영방식 변화 및 신규 종목 등장

- 온라인 플랫폼, 가상현실 기술 등을 이용한 비대면 대회 개최 활성화
 - * 가상현실 대회: 벨기에 투어 오브 플랜더스(Tour of Flanders), 호주 포뮬러원(F1)
 - * 온라인 대회: 덴마크 태권도연맹 온라인 품새 챔피언십
- VR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스포츠 종목 등장 가능성

③ 비대면 취약계층 출현

-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비대면 서비스 소외현상(untact divide)’ 발생
 - 모든 국민들이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스포츠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비대면 취약계층 대상 정책 필요

나) 스포츠 산업

① 비대면 소비주의 확산과 스포츠산업 패러다임 변화

- 코로나19 학습효과와 초연결 사회로의 조기 전환
 - 포스트 코로나 현상으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소비활동 확산
 - * 비대면 서비스 소비자조사 결과(선호도: 85.9%, 구매의도: 62.0%) 향후 비대면 기술 기반 소비 수용도가 높음(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OECD(2019))
 - 유통구조가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어 스포츠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유발
 - * 코로나19 발생 후 나이키의 온라인 매출 증가분은 코로나 영향에 따른 실적 감소 상쇄(MarketWatch, ‘20.3.26)
- 유통 시스템의 온라인·비대면화를 통한 스포츠산업 환경 변화
 -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접 이동은 비대면 기술 수요 증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¹⁾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 유발
 - * 카카오 Vx 스마트 홈트 등 운동 애플리케이션 실행 수치 111%, 월 평균 이용자 수(MAU: Monthly Active Users) 38% 증가
 -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비대면 기술 개발, 온라인·비대면 유통 인프라 구축이 필수
 - * 스마트 스토어 구축,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²⁾ 개발, 생산자-소비자 URL 공유 기능 등은 향후 비대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요소

② 스포츠 1인 미디어 시장 확대

1)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의 파괴적인 변화에 적응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IDC)

2)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 스트리밍 영상 중심의 양방향 쇼핑 거래 방식

- 1인 미디어³⁾·MCN⁴⁾ 중심의 스포츠분야 주력업종 등장
 - 모바일·온라인 기반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관람스포츠, 스포테인먼트, 홈 트레이닝 등 관련 분야 시장규모 증대
 - 1인 미디어는 전통적 스포츠 미디어업(지상파·종편 등)과 차별화·다양화된 콘텐츠 제공으로 시장을 공격적으로 확대
 - * 1인 미디어 시장규모: '18년 3조 8,700억→'23년 8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 * 국내 소비자의 유튜브를 통한 주당 1인 미디어 콘텐츠 시청시간: 78.7분(DMC미디어, '18.10)
 - 소비의 비대면화, 개인 영상제작 일상화로 인해 스포츠 참여·관람·후기 등 관련 영상을 직접 제작·소비하는 능동적 이용자 증가는 스포츠 미디어업 생태계 변화를 가속화
 - * 국내 유튜브 사용자는 1분마다 평균 400시간의 동영상 업로드(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

- 1인 미디어·MCN업이 유발하는 파급효과 증대
 - 스포츠 1인 미디어 활성화는 관련 산업 매출 및 고용증가 등 즉각적 파급효과 유발
 - * 코로나19 이후 홈트레이닝 서비스 및 관련 용품 매출증가: 2019년 1분기 대비 트위터 운동기구 113%, 에어보드 68%, 아령 29%, 덤벨·바벨 28%, 헬스기구 13%(G마켓, 옥션-이베이코리아)
 - Z세대를 주축으로 밀레니엄·X·베이비붐 세대까지 1인 미디어 채널 확대는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발생시키며 일자리 창출
 - * 약 3,200팀의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주요 MCN社에 가입·활동 중('19년 2월 기준)

4) 스포츠분야 비대면 과제

가)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3) 모바일·온라인 SNS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개인이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용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디어업

4) 다중 채널 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1인 미디어 창작자와 콘텐츠 제휴를 통해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 주체

① 개인·소규모 운동 콘텐츠 보급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

○ 온라인 통합시스템 구축

- 스포츠 관련 영상 및 기타 콘텐츠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운영

○ 비대면 콘텐츠 발굴 및 관리

- 사용자 중심의 생애주기별·운동 목적별 맞춤형 콘텐츠 발굴 및 제작 지원
- 비과학적인 운동방법이나 잘못된 정보전달 방지와 양질의 지도 서비스 향유가 가능하도록 검증된 콘텐츠 보급 지원

○ 전문선수 지원 체계 구축

- 비대면 현장지원 체계 구축, 고도화된 트레이닝 콘텐츠 개발, 온라인 심리상담 시스템 구축, 안심트레이닝센터 운영 필요
- * 일본: 엘리트선수 안심 이용 위한 스포츠센터 공조기 설비 갱신 등 감염증 예방과 상담 체제 강화(2020년도 보정예산금: 1.8억엔)

분야	내용
심리지원	▪ 선수·지도자의 심리적 혼란 및 동기손실 최소화를 위한 SNS 심리 상담 및 교육 영상자료(동기유발 영화 추천목록 등) 제공
기술/영상	▪ 영상자료 수집 확대 및 영상자료를 활용한 예측모델/훈련 콘텐츠 개발 등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심화분석 및 지원 추진
체력/컨디셔닝	▪ 종목별 준비 및 정리 운동프로그램 동영상제공, 컨디셔닝 지침 제공, 자가 체력평가 프로그램, 홈 트레이닝 기반 콘텐츠(예, 유튜브) 지원

자료: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② 스마트 짐 구축 및 운영

- 스마트 짐⁵⁾ 체제 구축 및 운영을 통한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중심 체력·건강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5) 운동기구 등에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접목시켜 사용자의 운동 및 건강 정보를 인공지능(AI) 솔루션으로 관리하는 형태의 피트니스 센터

③ 비대면 대회 운영 및 신규 종목 개발

○ 비대면 대회 운영

- 온라인 심사, 가상현실 기술 적용 등 비대면 대회 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앙 집중형으로 진행되어온 대회운영을 지방 분권형으로 전환하여 지역별 스포츠대회 격차 해소

○ 신규 종목 개발

- VR을 결합한 새로운 스포츠 종목 개발 및 이벤트 대회 개최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

④ 비대면·온라인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운동 매뉴얼 보급

- 온라인·비대면 콘텐츠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자가 체력관리 방법, 운동수칙 등을 보급

○ 가상 스포츠체험 공간 확대

- 학교 및 공공체육시설 등 비대면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및 스마트 짐 설치를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

나) 스포츠 산업

① 페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비대면 생태계 조성

○ 스포츠분야 비대면 기술(UT) 연구개발 지원

- 대인 접촉 최소화, 스포츠상품 공급자와 소비자의 편익 최대화를 위한 원천기술인 ‘비대면 기술 연구개발(R&D)’ 지원
- UT,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기기 및 소프트웨어개발 통한 제품 및 서비스 국산화
- * 글로벌 스마트워치 출하량은 전년 대비 42% 증가(1,400만대)하였으나 애플이 시장을 주도, 구글과 삼성전자가 2위 그룹으로 경쟁(3개社 점유율: 72.6%)

○ UT 기반 온라인 스포츠 용품·서비스 유통채널 구축

- 스포츠산업의 비대면 시장확대를 위해 상품과 서비스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비대면 유통 시스템’ 구축 필요

- * 스타벅스(사이렌 오더), 아마존(Amazon Go) 등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이미 국내에서도 애플리케이션, 키오스크(KIOSK) 도입을 통한 비대면 유통 시스템 전환 비율 가속화(맥도날드 61.9%, 버거킹 70.0%, 공차(41.9%)(각 업체 제공, 2019)

② 스포츠 1인 미디어 시장 활성화를 통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

○ 스포츠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 및 창업지원

- 모바일·온라인 기반 1인 스포츠 미디어업 활성화를 코로나19 이후 스포츠산업 분야 창의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 * 스포츠 1인 미디어 콘텐츠/제작자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1인 미디어업 유입 장벽 제거,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 누구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원스톱 1인 스포츠미디어 제작 센터’ 구축

-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내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한 ‘원스톱 미디어 제작 플랫폼(공용 스튜디오 등)’ 구축·운영

○ 1인 미디어 창작자 성장단계별 맞춤형 제작지원

- 1인 스포츠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제작지원’을 통한 사업화 촉진 및 고도화 지원

- * 과기부는 2016년부터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지원 체계를 수립 1인 미디어업의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예: 1인 미디어 창작 전주기 지원 체계)

-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통해 1인 미디어 제작자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 유도

- * (창업기) 동영상 편집 지원 → (도약기) 멘토링 지원 → (성장기) 스포츠 분야 공공 콘텐츠 제작 참여 기회 제공 등

○ 교육 지원을 통한 1인 미디어업 경쟁력 강화

- ‘1인 미디어 창작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스포츠 콘텐츠 품질 향상, 해외 진출 등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 지원

- * 스포츠 1인 미디어 창작자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회계, 해외진출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우수 역량 창작자들을 선정하여 창작자에게 필요한 선택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Voucher) 제공

- * 1인 미디어 제작자들의 콘텐츠 유형(스포츠 관람, 참여, 홈트레이닝 등)별 전문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책지원에 대한 만족도 제고

2. 과제 : 스포츠분야 고용대책 확대

1)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분야

① 생활체육 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

○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 확대를 통하여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업 실직 지도자 고용창출 필요
- 배치규모 : 2019년 2,740명에서 2020년 3,226명으로 확대
- 일반 지도자 1,700명, 어르신 지도자 172명, 유소년 지도자 226명(기초자치단체 당 1명)

연도	지도자 정원(명)			
	총원	일반	어르신	유소년
2015	2,480	1,400	1,080	-
2016	2,600	1,400	1,200	-
2017	2,600	1,400	1,200	-
2018	2,600	1,400	1,200	-
2019	2,740	1,496	1,228	16
2020	3,326	1,700	1,400	226
'19~'20 순증가	586	204	172	210

○ 국민체력100사업 확대

- 일반 국민들에게 체력향상을 위하여 과학적인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해 주는 체육복지 서비스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력인증센터 개소 수 확대 필요
- 배치규모 : 2019년 현재 전국 국민체력인증센터는 53개소로 2020년 75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나 85개로 추가 확대
- 인력규모 : 센터 당 체력측정 2명, 운동처방 2명, 출장측정 6명(행정인력 별도)필요

연도	2019	2020	
		예정	확대
센터 수	53	75	85

○ 공공스포츠클럽

- 공공스포츠클럽은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회원에게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전문지도자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개소 수 확대 필요
- * (설치규모) 2013년 8개소로 시작하여 2019년 합계 89개소 운영 중
- 확대규모 :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당 1개소 설치를 목표로 '20년 30개소 확대

② 체육지도자 긴급 생계 및 직업훈련 지원

○ 생계형 생활안정자금 용자 지원

- 개학 연기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체육지도자(스포츠강사 포함)의 생계지원을 위해 최대 300백만원 특별 용자지원 필요
- 용자내용 : 체육지도자 생계지원 용자 300만원(매월 10만원, 30개월 내외 상환 조건)

* 문화계는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 공연예술분야 온라인 상담창구 개설중, 공연 취소, 연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대상 긴급생활자금 용자 지원(총 30억원)

○ 직업훈련 및 관련 수당 지원

- 단기적 실업상태인 체육지도자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안전·위생 및 감염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직업훈련수당 지원 필요
- 지원내용(안) : 안전·위생 및 감염예방교육(일 6시간 씩 3주간 총 90시간 온라인 교육 실시), 교육 이수 시 직업훈련수당 1백만원 지급 추진
- 지원대상 :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업을 포함한 스포츠산업 종사자로서 단기 실업자

<체육지도자 등 체육분야 종사자 현황>

(단위: 백명)

구 분	종사자수	비 고
스포츠시설업	1,739	·스포츠 건설업 제외
스포츠서비스업	248	·태권도·무술·기타 교육기관
합 계	2,287	·스포츠산업 전체 종사자 수 4,346백명

* 자료: 2019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2020)

③ 선수 온라인 트레이닝 콘텐츠 개발 지원

- 집, 주변 환경(공원, 계단 등)을 활용한 종목별, 개인별 트레이닝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지원

④ 선수 전용 방역 안심트레이닝센터 운영 지원

- 선수촌 및 합숙소, 트레이닝센터 등의 휴관 등에 따라 지역별 방역 안심 트레이닝 센터를 지정하여 선수들이 시차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 이용자 수 제한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엘리트 선수(팀) 훈련여건 조성
 - * 일본의 경우 엘리트선수 안심 이용위한 스포츠센터 공조기 설비 갱신 등 감염증 예방과 상담 체제 강화(2020년도 보정예산금: 1.8억엔)

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 생계형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의 해고 방지 등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일부보조 지원을 위한 기금회계 특별 편성 필요

<전국 직장운동부 운영 유형>

구분	합계	공공기관	일반기업	지자체	협회,연맹	지역	기타
팀 수	962	63	86	520	1	256	36
비 중	100%	6.55%	8.94%	54.05%	0.10%	26.61%	3.74%

* 자료: 대한체육회 내부자료, 2018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현황

2) 스포츠산업 분야

① 스포츠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필요

- 필요성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내 체육시설 경영악화로 인한 매출감소에 따른 휴·폐업 발생, 대량실직, 생계위협 및 경영 악화 심화
 - * 대면 밀접접촉 실내 체육시설: 체력단련장, 스포츠 무도장, 무도학원, 체육도장
 - * '18년 말 기준 국내 스포츠 시설업·서비스업 종사자 수: 약 299천명
- 대상업종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업종으로서 체력단련장, 스포츠 무도장, 무도학원, 체육도장 등 실내 스포츠시설 업종을 대상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 지원대상 :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 지원혜택 ; 사업주(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훈련지원, 고용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연장·유예 등), 근로자(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Ⅱ,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촉진장려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등)
- 지원기간 : 최초 지원기간 최대 2년, 1년 범위 내 2회 연장 가능

<주요 지원내용(관광·공연업 사례)>

구분		일반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 지원금 (유급휴업· 휴직)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2/3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 기업 2/3~3/4
	지원한도	1일 6.6만원		1일 7만원(대규모기업 6.6만원)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업)	지원요건	① 무급휴직 실시(9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3개월)		① 무급휴직 실시(3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
직업훈련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훈련비 지원 단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국민내일 배움카드	①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② 훈련비 자부담율 15~55%		①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② 훈련비 자부담율 0~20%
	훈련연장 급여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제4호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의 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
생계비 대부한도	1명당 1천만원		1명당 2천만원	
고용신체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X 체납처분 집행유예 X		납부기한 연장 O 체납처분 집행유예 O	
건강보험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체납시 연체금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X		건강보험료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O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부과		면제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1명당 3만원)	
취업성공패키지 II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특별고용지원 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면제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용자	소득요건 (*)	(임금감소·소액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 ('20년 월 181만원) (이외 생계비) 3인 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0년 월 259만원)	(임금감소·소액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 ('20년 월 222만원) (이외 생계비) 4인 가구 중위소득 2/3이하('20년 월 317만원)
	상환기간	최대 5년(거치 1년/ 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한도액	(임금체불생계비) 1천만원 (자녀학자금) 연 5백만원	(임금체불생계비) 2천만원 (자녀학자금) 연 7백만원
	대상자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자녀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고용촉진장려금		각 부처 운영 13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만 지원가능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적용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지원대상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

자료: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고용노동부, 2020.3)

② 스포츠산업 운영자금 확대지원

- 현행 스포츠산업 특화 긴급편성 용자지원인 ‘튼튼론’ 집행범위 확장을 위한 정책용자 예산 대폭확대 및 실행
 - 사업체 본원적 경영활동 소요자금 활용목적 저금리 간접대출
 - * 지원대상: 스포츠 용품업(제조·도소매업), 스포츠 서비스업(에이전트·마케팅업 등)을 영위하며 '20년 3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매출액 30% 이상 감소업체
- 국민체육진흥기금 추가할당·전입 또는 추경을 통한 한시적 집행재원 확보 추진
 - * '20년 스포츠산업 용자지원예산 : 662억원(튼튼론 편성 200억원 포함)

③ 스포츠산업체 종사자 긴급 생계자금 지원

- 체육시설운영업, 스포츠 교육관련 업종 피고용 종사자 감원에 따른 종사자 생활안정자금 긴급 용자 실시(실업자 구제의 경우 기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제도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용자형태의 선별적 추가지원 실행 필요)
 - 매출액 대폭감소에 따른 업종별 대량감원 사태예상, 종사자 실직·임금삭감 대비 기초생활자금 대부 필요

- 추정 산출액 : 지원 예산 최소 3,031억 ~ 최대 3,726억원 필요
 -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300만 원(3개월 거치 최대 5년 원리금 분할상환)
- ④ 체육시설업 임차료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 따른 주요 피해업종인 실내 체육시설업과 도장업 등 교육 관련 업종 대상
 - * 과학원 현안조사 결과 기초 방역제외 가장 높은 빈도수 차지(16.3%)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정비용인 임차료 지속발생과 이에 대한 부담심리로 추정
 - * 대면·공간기반 업종인 시설업(17.4%), 서비스업(24.2%)의 임차료 지원요청이 용품업(12.0%)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
 - 추정 산출액 : 지원 예산 최소 2,843억원 필요
 - * 지원구조: 총 6개월간 지원, 부담률 50% 정률매칭 방식(스포츠산업 관련 타 정부 지원사업 준용)

IV. 나가며 : 신속한 집행을 기대하며

- 코로나19는 분명 스포츠계를 생태계를 뒤흔들어 놓고 말았음. 모든 스포츠 활동의 중단으로 스포츠 현장은 아사직전으로 내몰렸음
-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전 국민의 헌신적 참여 속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모범적 방역관리로 아직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스포츠 현장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음
- 정부도 그런 흐름에 맞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다양한 정책프로그램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타이밍임. 세밀한 정책 프로그램도 좋으나 지금은 모든 스포츠가 멈춘 전례가 없는 위기 상황임. 지금 당장 멈춰버린 스포츠를 통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정책이 먼저임. 스포츠계 현장을 살리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
- 그래서 스포츠계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 마련과 그들의 신속한 시행이 더욱 더 기대되는 이유임

끝.

04

지정 토론(자문)

· 문화정책

이 지 원 충남문화재단 본부장

이 미 영 충남문화재단 팀장

김 명 재 당진문화재단 팀장

박 미 영 前)아산문화재단 팀장

· 스포츠정책

김 태 동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조 한 영 충청남도 체육회 사무처장

변 현 수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비대면 문예활동과 미디어콘텐츠의 홍수로부터 기인한 위기

이지원 본부장 | 충남문화재단 (won@cacf.or.kr)

I. 서론

'KBS열린음악회'가 유행했던 시기, '클래식음악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다'라는 이유로 많은 찬사를 받았다. 표면적으로 대중예술과 클래식음악분야가 융·복합되어 새롭게 창출된 新 장르가 거대한 미디어의 힘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며 매우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결국 이로 인하여 클래식음악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클래식음악가들의 입지가 극도로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II. 내용

'열린음악회'의 유행 이후,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클래식음악은 대중예술과 접목되었을 때에만 재미가 있다'라는 생각들로 각인되었고, 자연스레 클래식 레퍼토리로만 구성된 음악회는 설 자리가 없어졌다. 현재는 오페라와 심포니음악회 등을 제외하면 정통 클래식 프로그램으로만 구성된 음악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로인해 우리나라 클래식음악(음악기초분야) 시장의 발전은 멈춰 버렸고, 수많은 예술가들이 다른 생업을 찾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당장의 급급함으로 인해 비대면 콘텐츠의 홍수가 일어나고 있다. 급하게 찾아낸 방편이기에 현재 퀄리티 면에서 그리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형 연예기획사 등에서 추진하는 온라인 사업들은 당장 방송에 송출을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준을 갖는다. 그리고 유명세와 기득권을 무기로 이들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보편의 예술인들은 그저 임시방편으로 비대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대면 콘텐츠를 통한 수익창출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결국 문화예술계의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심화되어 서민 예술인들은 그저 문화예술 기득권층의 들러리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된다면 예술성을 담보받기 위해 미디어 활용 및 제작스킬의 비중이 매우 커지고, 이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감동을 받는 요소는 저마다 다를 수 있다. 예술가의 손짓, 숨결, 공간의 분위기 등이 저마다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는 미디어가 선택한 요소만 감상할 수 있기에 그 한계와 부작용이 따른다. 여러 가지 스킬을 사용하여 장 점만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숨기는 것이 당장에는 눈과 귀를 즐겁게 하겠지만, 순수예술장르의 발전 측면에서 본다면 독약이나 다름이 없다. 예술은 창의적이고 정직하여야 한다.

심지어는 축제까지도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축제는 ‘잔치’이다. 잔치는 한 데 어울려 즐기는 것이 핵심이다. 비대면 축제라는 것은 ‘나는 놀테니 너희는 구경해’라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물론 영상 및 문자채팅 등을 통해 일부분 참여한다고 하나 이것으로 잔치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하다.

III. 결론 및 시사점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상황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양질의 비대면 문예활동과 미디어콘텐츠에 고민은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콘텐츠들은 관객들과 참여자들을 무대와 축제장, 그리고 전시장으로 발길을 향하게 하는 도구로만 쓰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문화예술장르의 완성품을 미디어化 하는 것보다, 오프라인 공연 및 전시, 그리고 축제 등이 가능한 시기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콘텐츠(창작 및 제작과정, 기획과정, 예술인 및 단체의 홍보 등) 제작에 방점이 찍혀야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들을 아카이빙하고 상시 노출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한다면, 이는 시간이 흐르고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거대한 ‘온라인 아트마켓’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융·복합 예술이 성행하고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순수예술(기초예술)의 발전 없이는 그 미래 역시 없다’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기를 활용하여 다시 한 번 순수예술분야를 돌아보고 정비할 수 있는 미디어 활용방법을 고민하여야 한다.

예술가와 함께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담은 문화예술정책을 만들자

이미영 팀장 | 충남문화재단 (mia3198@cacf.or.kr)

I. 팬데믹 선언(3.11.)이후 달라지는 삶에 예술의 역할 강화

코로나가 재창궐하는 시기를 예측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패닉상태를 대비하듯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화두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예측하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새롭다기보다는 4차산업혁명 등을 통해 꾸준히 논의되었던 논의가 가속화하고 앞당긴 측면이 강합니다. 어쩌면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은 지금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대세가 된 온라인 공연과 전시 등 언택트(Untact)의 확대와 심층적으로 논의되던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더욱 공론의 장이 되고 있는 것은 팬데믹 선언이후 나타난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런 상황에 10년 이상 추진이 어려웠던 '예술인 고용보험'의 국회통과는 예술계에 더 없이 좋은 소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드미트리 오를로프(1962)는 경제위기에서 인간성의 상실까지 다섯 단계의 붕괴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인 문화의 붕괴는 '인간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다. 가족이 해체되고 희소한 자원을 놓고 개인들이 경쟁을 벌인다. 내가 하루 더 살려면 네가 오늘 죽어야 한다'가 새로운 행동 원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 격리 등을 통해 사회의 붕괴를 우려하게 되었고 수천년 간 쌓아온 우리 삶의 방식, 문화에 대한 붕괴를 우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 위기상황에서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사례를 되짚어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강구해야합니다.

어려움이나 위기를 겪을 때마다 예술가들은 창의력을 발현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선두적인 역할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긍정적 동력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예술의 힘이고 사회적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이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예술가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II. 예술가에 의해 변화하는 예술정책을 만들어야...

유네스코 발표에 따르면 128개국에서 문화시설을 폐쇄 했다고 합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 브로드웨이, 루브르, MOMA 등, 우리나라는 3월22일부터 강

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어 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에서 공연이 취소 및 무기한 연기되었고 문화시설 또한 당연히 폐쇄되었습니다. 현재는 생활 거리두기로 일부 오픈을 하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이 현재까지 오픈 되지 않는 곳들이 즐비합니다.

이로 인해서 예술가들이 설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예술활동을 통한 경제적 활동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긴급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45억원, 경기도 103억원, 대전시 00억 등) 하지만 긴급지원인 만큼 방법과 지원 방향에 대한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창작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혹은 기존 예술분야 지원에 선정된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는 등 위기의 지원정책이 아닌 기존 정책과 차별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뿐 아니라 문화예술계의 지원정책을 구체화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다. - 수익구조 안정화를 위한 예술가 보상체계 등에 대한 고민을 담은 지원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등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예술가에 적용하는 것 또한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술가의 창작품을 디지털기술과 접목하여 콘텐츠화 하는 방법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현재 공연은 비대면 활동을 위해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디지털화 되어 있는 공연을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행하는가 하면 예정된 공연을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추진하기도 하였고 온라인 상영을 목적으로 창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과 방향은 팬데믹 속에서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이 무엇인지를 찾는 다양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극복하면서 예술가는 관객과의 소통하는 방식, 새로운 창작형태 등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유네스코 ‘디지털 환경 가이드라인’(2017)에서는 예술가에 대한 임금과 보상체계, 수익배분 구조의 투명성 네트워크 접근성, 지적 재산권보호, 디지털 창작물 아카이빙을 위한 법적 시스템을 언급하고 있음.

예술가는 대부분 독자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금융위기, 경제위기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공감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위기의 시대에 긴급지원의 우선순위에 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과거 영국에서 문화예술위원회를 만들고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된 예술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구조화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 등을 돌아보고 우리의 예술지원정책은 적절한지, 현장과의 소통은 지속적이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 . 포스트 코로나시대 예술의 가치와 회복에 대하여 - 제1회 코로나19 예술 포럼, 발제문/ 경희대 박신의 교수
- .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정책 - 포스트 코로나시대 문화뉴딜 토론회, 발제문/ 가톨릭대 임학수 교수
- . 붕괴의 다섯단계 - 드미트리 옐로프 지음

포스트코로나19 시대, 충남문화예술 예술정책 방향 제언

김명재 팀장 | 당진문화재단 (dresdenkim@hanmail.net)

I. 서론

코로나19가 가져온 대한민국의 변화는 문화예술계에도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다. 이러한 변화는 충남문화예술계에도 변화를 일으켰다. 또한 현재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충남문화예술계가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에 관한 제언하고자 한다.

II. 내용

1. 코로나19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문화예술 이슈들

1) 문화예술계의 존립 기반 붕괴

-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는 생존이 목표가 됨

2) 비대면(온라인) 환경 전개

- 그간 문화예술공연에서 비대면 공연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공연은 보편화 됨
- 온라인 콘텐츠로 무게 중심 이동됨에 따라 자본이나 비용의 문제 발생
- 지역 예술인과 사회적 약자들이 느끼는 Digital Divid(디지털 격차) 발생

3) 기술중심적 사회에서 문화예술만이 지닌 고유한 사회적 기능에 대한 고민

- 그간 기술중심의 변화 안에서 문화예술공연활동은 대면(Contact)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미래에도 변함없을 것으로 예상
- 새로운 표준(New Normal)의 시대는 한 공간에 모여 대면하며 공감과 교감하는 과정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제약이 존재
-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예술이 지닌 사회적 기능은 “공감력 증진”
- 사람과 사람이 가슴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은 문화예술

2. 충남 문화예술계에 대한 제언

1) 공공기관

- 현 시대를 이끌어가는 철학 사조에 대한 연구 (충남연구원)
 - : 이미 4차산업 혁명에 대한 담론들은 일찍이 시작되었으나 이러한 사회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는 철학 사조에 대한 담론들은 이야기 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지속가능성, 안정성이 보장된 지원체계 확립
 - : 예술인 생활안전과 복지, 문화예술단체의 경영 안정성, 민간 문화공간의 경영 안전성 등
- 광역과 기초 사이의 실질적 문화정책 교류
 - : 위기 상황에서 광역과 기초가 함께 참여하는 “충남지역 문화 위기 대응 TFT”
 - : 공동 위기 진단 및 대응 체계 구축
- 잠재적 위기 상황을 대비한 긴급 위기 대응 자금 확보
 - : 가칭 “충남 문화예술 위기 대응 자금”
- 위기 상황 시 지역과 공동 대처를 위한 문화 클러스트 형성을 위한 장 마련
 -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충남연구원(2016))
 - :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예술가와 주민들의 교류 증진
 - : 예술가들에게는 창작 활동과 사회공동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
 - : 주민들에게는 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 자존감을 형성 및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양,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활성화 이룩
- 예술인들을 위한 정보통신 교육 추진
 - : 4차 산업사회에 문화예술의 창의성과 예술성이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한다면 우리나라의 문화창달 뿐 아니라 예술인들의 안정적 예술활동 보장도 가능
- 마을 단위 소규모 문화 공간 및 단체 지원
 - : 예) 빈집을 활용한 미술관

2) 예술가 및 예술단체

- 실력향상을 위한 노력
 - : 온라인에서는 밀도 높은 콘텐츠만 생존 가능
 - : 온라인을 자주 경험하게 되면 고급화된 오프라인 콘텐츠 활성화
 - 예) 구형 LD
- 변화에 대한 적극적 수용 자세
 - : 사회의 변화는 파잉 컨텍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
- 문화예술이 지닌 “사회적 공감력” 활용
 - : 기업은 이미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생산·물류 자동화에 투자
 - : 사람이 리스크라는 생각에 노동현장에서 이탈되는 사람이 많을 것
 - : 사람들과 공감하며 이들을 위한 예술활동 전개
-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교류 증진
 - : 사람이 중심된 세상을 이끌기
 - : 건강한 공동체 이룩 활성화

III. 결론 및 시사점

- 코로나19 시대는 충남 문화예술계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문화예술의 고유한 사회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됨
- 대처하기에 따라 문화예술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계기가 될 것임

포스트코로나 이후 문화예술 ‘변화에 대비하라’

박미영 팀장 | 前)아산문화재단 (peerone@naver.com)

2018년 5월 발표된 「문화비전2030」은 ‘사람이 있는 문화’로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의 3대 방향과 9대 의제를 제시하는 비전이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역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역할 수행자인 문화예술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사회 모든 부문이 타격을 받고 문화예술계의 예술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은 「문화비전2030」에도 변화의 시사점을 던져 줄 것이다.

‘

초토화된 문화예술 “지금이 더 꽃피울 기회”
‘코로나19가 바꾼 향로, 미래 시계가 빨라졌다’
움츠렸던 청년예술인 재도약 ‘담금질’... 문화계 새판짜기
관객없이 온라인 생중계 하고 녹화 영상을 스트리밍
뮤지컬 ‘웃는 남자’ 27만명 접속
“공연장 찾지 않을 것”우려도 남아

’

※ 출처 부산일보(2020.04.13.)

위의 내용은 한 지역신문기사에 기재된 글로 지금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현실에서 발표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변화에 대비한 문화정책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I. 변화된 우리사회의 문화예술

언택트 문화일상은 사람들 간의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됨에 따라 확산된 문화이다. 홈 루덴스(Home Ludens) 집에서 안전하게 놀고 즐기는 문화 확산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창출을 포함한 산업 변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당연한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할 수 없는 사회 뉴노멀(New Normal)로 불리는 ‘새로운 표준’의 시대대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엔택트1) 예술’등 문화예술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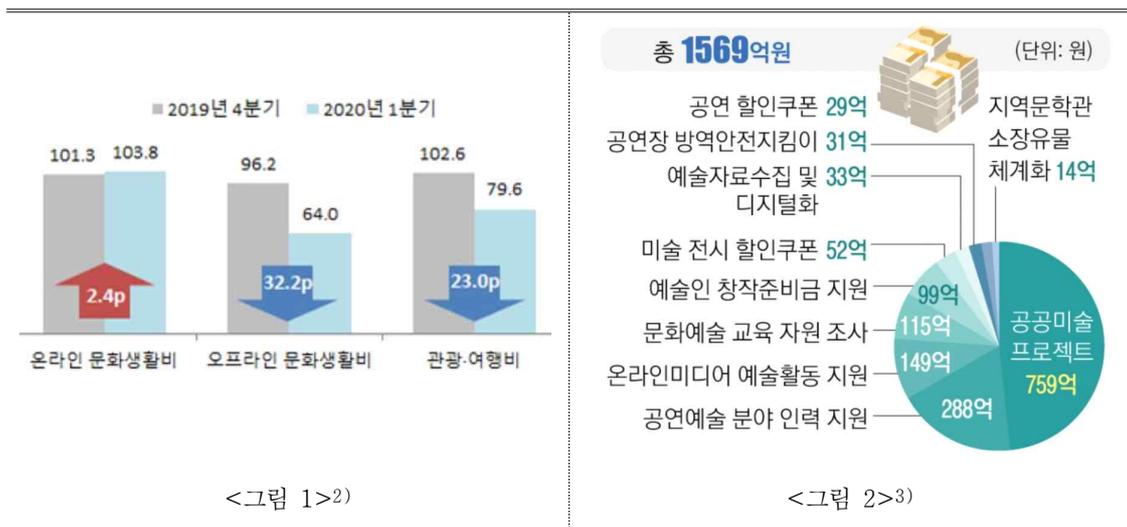
- 현장중심 문화예술의 마비 :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 지상파 방송의 관객 중심 프로그램 제작 중단
- 지역별 대형 축제 취소
- 플랫폼 중심의 렌선 공연 및 무관중 공연
- 다양한 문화소비 방식 변화 초래

이외에도 생활문화, 전시, 문화예술교육, 영화산업, 창작지원금 사업등 문화예술계에 다양한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

II. 문화예술 ‘변화에 대비하라’

정부는 코로나19관련 문화예술분야의 다양한 정책지원을 내놓고 있으나, 문화예술인은 정책지원 뿐 아니라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지원받길 원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각 지자체와 협업하여 적극적인 지원방향을 함께 고민하여 정책지원이 단계별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로 문화예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더욱 다양하고 파생적인 문화예술로의 변화와 글로벌한 무대로의 세계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문화예술은 보편적으로 현장중심의 공간적 예술이었다면 코로나로 공간적 제약을 탈피하여 4차 산업혁명과 발 맞춰 SF적인 상상력을 가미한 홀로그램과 미술관 및 박물관의 VR체험, AR로 만들어진 가상무대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 지원, 장비, 인프라 등을 구축 조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대면 사회에서 교육과 기술투자 및 포스트코로나 이후 뉴미디어에 대한 문화예술적 경험지식을 쌓는데 주력해야 하며, 공간 제약을 벗어나 뉴미디어 시장에서의 문화예술의 확장과 육성을 지원하는 것이 기관의 역할일 것이다.



1) 엔택트는 부정 접두사인 '언(UN)'과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의 합성어로 비대면·비접촉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
 2) 2020년1분기 문화체육관광 동향조사 결과 소비자 동향지수를 산출
 3) 문화체육관광부 추경예산 현황

스포츠 'Post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자

김태동 부연구위원 | 강원연구원(tdkim21@rig.re.kr)

I. 들어가며

-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 19를 전염병 최고 위험 등급인 팬데믹(Pandemic) 공식 선언
 - WHO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병한지 3개월여만에 공식 선언
-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
 - 코로나 19는 수요와 공급 양측 모두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경기침체와는 상이
 - 국제기구들은 당초 2.5%~3.4%로 전망하였던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2.4~0.1%로 대폭 하향 조정
 - 브루킹연구소는 최악의 경우 올 세계 GDP는 9.2조 달러, 한국 GDP는 30~1,240억 달러 감소 전망
- '언택트(untact :비대면) 경제' 부상
 - 감염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로 비대면·비접촉 경향이 확산
 - 온라인 배달 급증, 드라이브스 방식 확대, 무인 상점 증가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출현
 - 개학 연기로 인한 온라인 강의, 온라인 구매 방식 증가, 재택근무 일상화 등 변화 불가피
- 한편, 스포츠현장 또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며,
 - 공공체육시설 폐쇄 또는 일부 개방, 민간체육시설 이용자 급감, 체력인증센터 등 국민체력 100 사업 운영 중단
 - 전국 소년체전, 장애학생체전, 각종 종목별 대회 취소, 무관중 프로스포츠 이벤트 등으로 인한 스포츠산업 침체
- 비대면 스포츠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기
 - 체육시설 이용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른 건강유지 및 증진 대책 마련이 필요

II. 스포츠환경 변화와 과제

- 대면활동 한계로 약화되고 있는 스포츠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정책으로 스포츠 활동 약화
 - 각 종목별 동호인 모임 중심의 생활체육활동이 저조한 상황

- 다중 인원이 참여하는 대회(마라톤, 배드민턴 등) 미 개최
- 스포츠산업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
 - 무관중 프로스포츠 경기
 - 민간체육 관련 사업자와 종사자 폐업 및 감소
 - 스포츠 관련 이벤트 기획, 장비 대여, 기념품 산업 등의 침체
- 가상 증강 스포츠 확대 예상
 - 5G, AI 등 과학기술을 접목한 가상증강 스포츠 활동 체험 공간 확대
 - 온라인 자전거 대회(zwift), 온라인 트레일런 대회 등



- 비대면 활동이 가능한 일부 종목 활성화 도모
 - 비대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등산, 자전거, 트래킹 등의 종목 활성화를 통한 국민 건강유지 및 증진 필요
- 스포츠 현장의 안전성 강화 도모
 - 스포츠시설 내 감염병 예방과 위기 대응을 위한 매뉴얼 작성 및 교육 활성화
 - 스포츠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III. 나가며

- 스포츠 현장의 '비대면·비접촉' 활동 확대 직시
- 개별·소규모 단위로의 수요변화에 대비
 - 외부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스포츠활동으로 즐거움을 찾는 '홈 루텐스'족 니즈 파악과 수요충족
- 스포츠행위·수요행태 변화에 대응 필요
 - 대중교통보다 자전거를 이용한 이동 권장 캠페인
 - 원활한 온라인 스포츠 강좌 제공에 필요한 기기와 시스템 지원
 - 온라인 강좌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못하는 소외계층 지원책 마련
- 예산 점검 및 재편성 등 재정 효율적 관리
- Post-Corona 전략수립 추진
 -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 모색
- 특히 e-스포츠산업 육성 및 활성화 정책 마련 필요

|참고문헌|

- . 황규선(2020).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과 강원도의 대응방안
-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2020). 내부자료
- . naver.com

충청남도 체육회 'Post 코로나 시대 대응방안'

조한영 사무처장 | 충청남도 체육회(chungnam@sports.or.kr)

I. 들어가며

지난 연초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 스포츠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산업과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또한 날이 갈수록 국민경제 침체 및 일상생활에 까지도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체육활동은 특성상 실내 또는 야외경기장에서 관중과 함께 호흡하는 경기가 다수여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동안 국내 코로나19가 잡히는 듯 했지만 서울(이태원)에서 발생한 이후 수도권 및 지방으로 까지 확산되고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체육회에서는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각종 경기 및 체육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시대에 이를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 충남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 19를 전염병 최고 위험 등급인 팬데믹(Pandemic) 공식 선언

- WHO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병한지 3개월여만에 공식 선언

○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

- 코로나 19는 수요와 공급 양측 모두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경기침체와는 상이
- 국제기구들은 당초 2.5%~3.4%로 전망하였던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2.4~0.1%로 대폭 하향 조정
- 브루킹연구소는 최악의 경우 올 세계 GDP는 9.2조 달러, 한국 GDP는 30~1,240억 달러 감소 전망

○ '언택트(untact :비대면) 경제' 부상

- 감염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로 비대면·비접촉 경향이 확산
- 온라인 배달 급증, 드라이브스 방식 확대, 무인 상점 증가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출현
- 개학 연기로 인한 온라인 강의, 온라인 구매 방식 증가, 재택근무 일상화 등 변화 불가피

○ 한편, 스포츠현장 또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며,

- 공공체육시설 폐쇄 또는 일부 개방, 민간체육시설 이용자 급감, 체력인증센터 등 국민체력 100 사업 운영 중단
- 전국 소년체전, 장애학생체전, 각종 종목별 대회 취소, 무관중 프로스포츠 이벤트 등으로 인한 스포츠산업 침체

○ 비대면 스포츠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기

- 체육시설 이용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른 건강유지 및 증진 대책 마련이 필요

II. 코로나 시대 충남체육의 발전 방향

그동안 충남체육은 「함께하는 스포츠로 더 행복한 충남」이라는 비전 아래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응원 속에 각종 전국 단위 체육대회에서 상위권을 유지해왔다. 전국단위 체육대회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충청남도과 충청남도체육회, 시군체육회, 도교육청 등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힘써왔다. 각종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선수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감독과 코치의 지도능력 그리고 지원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도 함께 어우러져야 가능하다. 금년의 경우 연초 각종 전국단위 경기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해 경기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착실히 추진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시대 충남체육의 나아갈 방향 및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충남체육은 전국단위 대회에서 계속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평소 체력 강화와 함께 하계 및 동계 훈련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다.

둘째, 선수의 체력 강화를 위해 스포츠과학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선수의 체력을 측정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각종 종목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각 팀의 감독 및 코치 등이 평소 기술을 익혀 이를 선수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자에 대한 역량도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넷째, 코로나19 시대에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선수 경기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체력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충남체육은 엘리트 체육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평소 도민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걷기 등 생활체육을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다.

특히, 걷기 앱을 개발하여 전 도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월 목표 걸음 수 20만보 이상 참여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농산품을 제공하여 동기부여와 함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하여 도민의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의 격차를 줄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III. 맺는 말

코로나19 시대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깊어지고 무더운 날씨로 인해 거리두기 등 방역에 다소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철저한 방역을 통해 코로나19를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켜야 한다. 코로나19 시대에 체육활동은 전국단위 및 도단위 경기 등은 취소하거나 내년도로 순연하여 개최하고,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력강화 훈련은 일본 등에서 제시한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한 가운데 소규모 대회는 점진적으로 개최를 검토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선수의 체력 강화,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하계 및 동계훈련 실시, 체육지도자의 역량강화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즐기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걷기 등에 대해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최근, 등산 인구가 늘고, 하천변과 마을 안길을 걷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코로나19 시대 한 단면으로 엿볼 수 있다. 앞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보다 발전하면서, 도민의 건강수명과 평균 수명의 격차가 줄어 「함께하는 스포츠로 더 행복한 충남」이 구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Post 코로나 시대 대응방안'

변현수 사무처장 |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k9503@hanmail.net)

I. 코로나 대응을 위한 대응 방안

- ① 비대면 활성화, 사람과 사람간 접촉을 줄이는 새로운 시대(뉴 노멀)에 맞게 그에 따른 다양한 스포츠 활동의 매개체 지원 및 개발 필요
 - 1)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프로그램과 같은 IT기술과 접목된 신체활동량이 많은 동적인 요소의 스포츠종목 추가 개발 및 보급
 - ※ Virtual Reality(VR, 가상현실), Augmented Reality(AR, 증강현실)
 - 전자제품, 통신회사 등과의 접촉을 통해 학교현장(장애학생), 체육관 또는 전용 체험관을 만들어 설치 후 운용, 확대
 - ※ 국민체육진흥공단-전국 초등학교 및 공공시설 150개소(20년) 보급 예정
 - 기기 설치를 다수의 학교 및 단체에 설치하여, 통신을 이용해 서로 경쟁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마련, 동기유발, 경쟁을 통한 경기력, 신체능력 향상
 - 2) 홈트레이닝 활성화 및 장애인프로그램 개발
 - 홈트레이닝 활성화 및 이용자 시청 편의를 위한, 미디어 기기 구입(고화질)
 - 재가 장애인, 시설 이용 장애인 등을 위한 맞춤형 장애인 홈트레이닝 프로그램 개발
 - 비대면 서비스 취약 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미디어 기기 임대 사업
 - ※ 초등학교 온라인 수업 전자기기(아이패드 등) 임대 지원
 - 손쉽게, 온라인 영상 및 프로그램에 접근 할 수 있는 대중 인터넷 매개체 및 SNS 운영 기관 협력(다음,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플랫폼 활용
 - 3) 화상전화(페이스톡) 활용, 체육활동 지도
 - 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 양(다)방향 소통을 위한 페이스톡, 화상(영상)전화 활용 체육지도
 - 장애인체육 수혜기관, on-line 체육활동을 위한 미디어 시설 장비 지원 및 통신 시설 구축
 - ※ 아산시장애인체육회 화상전화를 이용한 생활체육지도 실시(20.4월)
 - 4) 거점형 장애인체육시설(충남체력인증센터) 등을 이용한 정기 자가체력측정 및 데이터 관리

- 장애학생, 장애인 주기별 자가 진단을 통한 신체관리
(일자별, 시군 순환을 통해 체육활동 참여자 자가 신체측정, 운동처방 활성화)

② 스포츠 분야 고용대책

- 1)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증원 배치
 - 지도자 확대로, 다수(10명이상)인원의 교실, 동호인 참여자, 소수인원(5인이하)으로 분산 지도
 - 물리치료, 운동처방이 가능한 인력풀(지도자)을 확보해 재가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 지원
- 2)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코로나19 장애인체육 지침서를 연구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체육활동 참여인구가 감소해, 장애인체육 종사자 잉여시간을 통해 자기계발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용

③ 점진적 체육활동(미니대회, 시도, 시군간 1:1교류전) 개시, 전개

- 1) 코로나19 방역을 통한 점진적 체육활동 전개
 -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 코로나19 대회 개최 및 교류전 시행 매뉴얼 연구, 개발
 - 철저한 개인위생과 빈틈없는 방역, 선진 시민(국민) 의식의 자가진단을 통해 30인, 50인, 80인 이하 등의 체육활동 전개(집합인원 점진적 제한 후 확대)
- 2) 지역별 거점체육시설(수영장, 볼링장, 체육관) 활용을 통해 기록 종목 타임레이스 경기 시행
 - 수영 : 공인 심판 및 경기운영 관계자를 대동한 후 개인별, 세부종목 타임레이스를 측정하여 경쟁
 - 볼링 : 공인 심판 및 경기운영 관계자를 대동한 후 개인별, 게임 에버리지를 측정하여 경쟁

④ 코로나19 장애인체육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체육은 비장애인 체육 영역보다 더 많은 위축과 불안, 걱정
면역력(호흡기, 뇌병변, 신장장애 등)이 약한 장애인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가 생활
이외, 타 생활 사실상 불가능
지적, 발달 장애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완전 이행의 어려움

신체 활동량이 적고, 이동에 제약이 많이 있는 다수의 장애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건강을
영위했던, 체육활동의 부재로, 심신이 약화

그래서, 더욱더 세밀한, 더욱더 사회적으로 배려된 정책과 행정이 지원되는 이유임

